

몸을 위한 생명의 체험과 성장과 사역

(토요일—오전 1부 집회)

메시지 4

영을 처리함으로 생명이 성장함

성경: 시 51:10하, 12, 17상, 잠 16:18-19, 사 57:15, 66:1-2,
벧전 3:4, 갈 6:1, 고전 4:21, 마 5:3, 눅 9:54-56

I. 영을 처리하는 것은 영 자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통로를 처리하는 것이다 — 눅 9:54-56, 벧전 3:4.

- A. 거듭난 영, 곧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은 순수하며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혼과 몸이 영을 둘러싸고 있는데, 혼과 몸은 모두 사탄의 악한 요소들과 혼합되었고 그 결과 더럽고 부패하게 되었다.
- B. 그러므로 영이 나오면서 혼과 몸을 통과할 때, 영은 혼과 몸의 더러움과 부패함으로 인해 오염된다. 따라서 영이 나타나게 될 때에는 어떤 더러움과 부패함, 불순함, 부적당함, 기타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를 띠게 된다.
- C. 우리는 영에 붙어 있는 것들의 특징들에 의해 영의 특징들을 판단한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면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그러한 종류의 특징들을 띠게 한다. 우리의 영이 해방될 때, 이 영은 바로 우리 인격의 맛과 특색을 표현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상태가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결정한다.
- D. 어떤 사람이 그의 혼 안에서 교만하다면 그의 영 또한 교만한 상태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육체 안에서 화를 낼 때 그의 영 또한 분노를 드러낸다.
- E. 우리는 종종 염려하는 영, 질투하는 영, 반역적인 영, 거친 영, 비뚤어진 영, 자랑하는 영, 지배하는 영, 혹은 무례한 영 등과 마주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이 혼과 몸을 통과할 때 혼과 몸의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들이 영에 영향을 미쳐 더럽힌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영이 어떠한지를 보고서 그가 어떠한 것에 의해 더럽혀졌는지를 알 수 있으며, 사람의 영이 어떠한지를 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난다.
- F.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면, 영 또한 해방될 때 순수하지 않다. 우리의 의도가 깨끗하지 않다면, 나오는 영 또한 깨끗하지 않다. 마음의 목적이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결과로 허세를 부리고 자랑하는 영이 나올 것이다. 경쟁하려는 동기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하고 분투하는 영을 만지게 할 것이다.
- G. 우리는 행동하거나 말하려는 순간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선한지 악한지를 질문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의도가 깨끗한지, 우리의 동기가 순수한지, 우리의 목표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인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
- H. 우리는 자신의 행동 배후에 어떤 이기적인 목적은 없는지 혹은 어떤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영을 처리하는 것이다.
- I. 이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조성이 파쇄되게 하여 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의 부정적인 모든 목적들, 바람직하

지 않은 의도들, 불순한 성향들, 부적합한 의지, 혼합된 감정을 남김없이 처리해야 한다. 그럴 때 영이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올바르게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로 나올 수 있다.

- J. 영을 처리하는 실질적인 길은 혼합된 모든 것을 유죄 판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제거하며, 자진해서 십자가를 적용하여 우리의 육체, 우리의 자아, 우리의 타고난 조성, 우리 마음의 목적, 목표, 의도, 성향, 동기 등을 포함한 영의 통로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야 한다 — 롬 8:13, 갈 5:24.
- K. 하나님은 자아를 처리하시고 끝내기 위해 우리 환경에서 모든 상황과 모든 일을 안배하신다. 이러한 방식으로, 곧 성령의 징계에 의해 우리의 영의 상태가 높아지고 순수해진다 — 마 10:29-31, 롬 8:28-29.
- L. 모든 형제자매들이 탁월하고 훌륭하고 순수하고 장중하고 숭고한 상태의 영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상호적으로 서로 공급할 것이며 교회는 풍성하게 될 것이다 — 비교 단 5:12, 6:3.

II.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유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당한 영을 가져야 한다.

- A. 누가복음 9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분을 거절한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을 불사르라고 명령해야 하는지를 물었다(54절). 그러나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이 어떠한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목숨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왔습니다.”(55-56절)라고 말씀하셨다.
 - 1. 제자들은 영이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동기가 증오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영은 사람들의 목숨을 멸망시키는 영이 아니라 구하는 영이다.
 - 2. 워치만 니 형제님은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영으로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3.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있어서 건설적이고 온전하게 하고 유용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는 일이 올바르게, 우리의 방식이 올바르게, 우리의 영이 올바라야 한다. 우리는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영을 갖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 B. 추구하는 성도는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해야만 한다 — 마 5:3, 8, 사 66:2.
 - 1.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여 자신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 비교 갈 6:3.
 - 2.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은 우리의 영이 비워지고 우리 존재의 깊은 부분이 그 무엇에 의해서도 점유되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순수한 것은 동기의 문제이다. 마음이 순수한 것은 목적이 단일한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단일한 목표만을 갖는 것이다 — 고전 10:31.
- C. 우리는 견고한 영을 가져야만 한다 — 시 51:10하.
 - 1. 견고한 영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확고하고 변함없는 것으로서 끊임없이 서 있는 영이다 — 비교 고전 15:58.
 - 2. 다윗은 회복되기 위해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 자신 안에 그러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

3. 우리는 언제나 확고하고 지속적이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영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유혹을 받거나 꾀에 빠지거나 오도(誤導)될 수 없다.
- D. 회개한 믿는 이는 자원하는 영을 갖는다 —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영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 시 51:12.
1. 믿는 이로서 우리는 주님의 일들과 교회의 일들을 위해 자원하는 영을 항상 가져야 한다.
 2. 주님의 권익에 속한 일들에서 자원하는 영을 갖는 것은 구원의 기쁨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영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갈망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응답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영을 갖게 될 것이다.
 3.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쁘게 행할 것이다 — 롬 14:17.
- E. 시편 51편 17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상한 영이라고 말했다.
1. 상한 영은 회개하는 영, 곧 죄악된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매우 슬퍼하는 영이다. 다시 말하면 상한 영은 참으로 회개하는 영이다.
 2. 상한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하고 완전하며 완벽한 존재로 여기지 않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영이 회개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은 상하고 통회하며 슬퍼한다.
- F. 우리는 온유하고 정숙한 영을 가져야 한다.
1. 베드로전서 3장 4절은 우리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 온유하고 정숙한 영이라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우리가 온유한 영으로 타락한 형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가 매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온유한 영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물어 보았다.
 2.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마 5:5.
 - a. 온유하다는 것은 세상의 반대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의 방식은 어떤 소유물이나 유업을 얻기 위해 싸우고 분투하며 다른 사람들을 패배시키는 것이다.
 - b.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온유해야 하며 다른 이들과 싸워서 안 된다. 온유는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G. 하나님은 통회하며 겸비한 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를 갈망하신다 — 사 57:15, 66:2, 비교 잠 16:18-19.
1. 만일 우리의 영이 통회하고 겸비하다면 우리는 상한 영을 가진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심지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2.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영이 통회하고 겸비한 자와 함께 거하리니 이는 겸비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 사 57:15.
 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영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 66:1-2.
 4. 하나님께서 언기를 갈망하시는 거처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 곧 통회하고 겸비한 영을 가진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 a. 하나님의 의도는 우주 안에서 한 거처를 얻으시는 것인데, 이 거처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이 거처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건축되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에게 상호 거처가 될 수 있다(요 14:2, 20, 23, 15:4, 요일 4:13). 신약에서 이 거처, 이 집은 교회인데, 교회는 믿는 이들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이다(엡 2:22).
- b. 이러한 우주적인 건축물, 곧 우주적인 집의 궁극적인 나타남은 새 예루살렘이다. 이 성에서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시면서 사람을 그분의 거처로 삼으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의 처소로 삼는다 — 계 21:3, 22.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영의 상태

동기와 영

워치만 니 형제님 :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다 말하지 못한 것을 계속하여 말하고자 한다. 어제 리 형제님이 말한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동기와 영을 분별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누가복음 9장 55절의 영을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의 사람의 영이 바로 사람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위 영이 옳다는 것이 바로 태도가 옳아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 사실 영과 태도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태도는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과 동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동기는 있을 수 있으나 영은 없다. 주님을 믿은 사람은 동기도 있으며 영도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영이 쉽게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이미 사람의 영에 특징이 없다는 것을 말했다.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삼십 년 정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잘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영이 특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일수록 당신의 영 그 자체에 특징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영의 특징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다. 영에 특징이 없다는 것은 마치 물에 특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므로 동일하지 않은 물질이 물속에 더해질 때 물이 그 물질의 특징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간장을 물에 집어넣게 되면 물은 간장의 특징을 띠게 된다. 사람의 영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영의 특징도 다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영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흘러나올 때 깨끗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의 동기는 자기를 위하여 생각하며 자기의 장래와 사업을 위하여 계산한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우리의 영을 더럽히며,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이러한 특징을 띠게 한다. 주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들의 영이 틀렸다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주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의 영과 달랐기 때문이다. 주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신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세상은 기이한 곳이다. 세상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아무도 주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세상 사람의 동기는 다 이기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학교에 있을 때 일등을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일등을 한 사람이 병으로 입원해 수술을 한다고 하면

당신은 그가 죽기를 바랄 것이다. 설마 어떤 사람이 단지 당신보다 더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정치에 있어서 이러한 일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면 그의 정적(政敵)이 빨리 죽기를 바란다. 같은 직종의 회사와 경쟁이 치열할 때 역시 상대방의 경영자가 죽기를 바란다. 제자들의 영이 틀린 것은 그들의 동기에 미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다. 주님의 영은 어느 한 사람도 죽어야 한다고 여기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그분의 영이다.

제자들의 마음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영도 옳지 않았다. 그러나 이방인은 마음만 있을 뿐 영은 없다. 그들의 마음은 안에 있지만 흘러나올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바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의 마음 역시 영을 따라 흘러나온다. 이방인에 대하여 당신은 그가 한 말에서 그의 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는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다. 누구든지 배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확실히 그의 안에서부터 어떤 것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마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영과 함께 흘러나온다. 그리스도인의 영이 흘러나오면 다른 그리스도인의 영이 그를 접촉하기만 해도 그에게서 뭔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람이 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일단 사람의 영이 흘러나오면 배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숨기지 못한다.

어떻게 올바른 영을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영을 가질 수 있는가? 사람의 영은 바로 그 사람의 맛과 색깔을 지니며 그것을 그 자체의 맛과 색깔로 삼는다. 당신의 영이 흘러나올 때 당신의 영은 또한 당신 자신의 맛과 색깔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영을 갖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루심을 받아야 한다.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면 그 사람의 영의 상태 또한 그러하다. 사람이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새 영의 상태는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사람이 배움이 부족하고 다루심이 부족하면 그 사람의 영은 어둠 안에 머물게 된다. 이 일을 교리적으로 아는 것은 매우 쉽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어떤 설교자의 재료, 어조, 가르침, 어투까지도 똑같이 배워 이러한 것들을 얻었으므로 옳은 영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가지 기이한 일은 바로 당신이 다른 사람의 교리와 용어를 얻어도, 당신의 영은 변하지 않은 채로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교리, 말, 어투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같을 수 있지만 당신의 영은 여전히 전과 다름없고 진보가 없으며 더욱이 순수하지 못하다. 사람에게 순수한 영이 없으면, 그의 영은 순수한 영을 가진 사람이 해방한 좋은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그가 다른 사람의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의 영은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 부담을 주셨는데, 그것은 젊은 사역자들을 관찰하여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다. 형제자매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사역하는 사람들이 교리를 바로 전하는지의 여부를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의 설교를 듣는 것은 십분의 일밖에 되지 않으며 내가 그의 영을 주의하는 것은 십분의 구를 차지한다. 어떤 사람의 말은 다 이치에 맞지만 그에게 배역의 영과 거친 영, 남의 결점을 찾아내는 영, 미워하는 영, 교만한 영, 강박한 영(말은 부드러우나 그 속은 강박함)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방인은 다만 교만이 있을 뿐 교만한 영은 없다. 그리스도인은 교만한 영을 가질 수 있다. 그가 일단 말을 하

기만 하면 그의 영을 흘러 내보낸다. 그리스도인에게 좋지 않은 동기가 있다면 좋지 않은 영이 흘러 나온다. 젊은 사람은 파쇄의 기도를 할 수 있고 파쇄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파쇄되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이 자기를 속일 수는 있지만 교회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데, 이는 교회가 그의 영으로부터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며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일의 흔적은 사람의 영 안에 남아 있다. 전에 한 형제가 나에게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다. “형제자매들이 다 나를 틀렸다고 하고 형제님조차도 내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다 옳고 나만 틀렸다는 말인데, 이미 형제님도 내가 옳지 않다고 말했으니 내가 옳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은 강박한 영의 냄새를 지니고 있다. 나는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즉시 그에게 이렇게 답장했다. “형제님은 맞을수록 더 강해지고 다루심을 받을수록 더 복종하지 않습니다. 형제님의 말과 행동은 옳을지 모르지만, 형제님의 영은 틀렸습니다.” 몇 개월 전에 이 형제를 다시 보았는데 나는 그의 영이 변한 것을 발견했다. 그는 더 많은 교리들을 얻지 못했지만, 그의 영의 상태는 높아졌다. 우리의 영이 훈련받을 기회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어떤 사람의 지혜, 구변, 패기, 은사가 당신보다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을 훈련할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각종의 환경과 사정을 안배하여 각 사람의 자아를 다루시며 우리의 영을 훈련시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성령의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징계를 언급해야 한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훈련받도록 우리 주변의 환경을 안배하신다. 성령은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인지를 가장 잘 아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징계이다. 우리에게 발생한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안배에서 온 것이다. 이방인은 우연히 어떤 일을 만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한 일이 없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몸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세셨으며, 참새와 같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일지라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참새보다 더 귀중한 우리는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다(마 10:29-31). 그러므로 우리가 당한 모든 환경,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가 땅에 떨어지고 한 마리의 참새가 떨어지는 것에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가 있으며, 그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의 징계는 바로 날마다 당신 자신을 다루시고 허물어뜨리심으로 당신의 영의 상태를 높이고 순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생활의 편안함을 얻으려고 성령께서 안배하신 환경으로부터 도망친다면, 당신의 어려움은 감소되겠지만 당신의 영의 상태는 풍성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된다.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그가 본래부터 빈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비록 주님의 일이 있지만 그가 기꺼이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기꺼이 성령의 징계에 복종한다면, 당신의 영은 갈수록 강해질 것이며 갈수록 깨끗해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십 년 혹은 삼십 년 된 그리스도인이거나 혹은 삼십 년 동안 부흥회를 인도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서 나는 좋은 상태의 영을 만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영의 상태가 좋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를 한번 만나자마자 시원하게 되고 기쁨 부음의 느낌을 갖게 된다. 사람이 주님 앞에서 배운 것이 얼마나 되든지 그것은 다 그의 영 안에 축적된다. 당신이 가장하고자 해도 가장할 수가 없다. 가장할수록 가장한 것만 드러날 뿐이다. 사람들은 늘 내 앞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가장하여 칭찬을 받기 좋아한다. 상하이에 있는 한 자매는 말하기를, 니 형제님은 한 번도 사람을 칭찬하지 않았는데 아마 아무도 그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사람을 칭찬할 자격이 있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영적인 사람은 자연히

주님께 인정을 받는다. 당신의 영이 옳지 못하면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을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온 마음으로 당신을 미워하지만 입으로 말하는 것은 사랑으로 가득하다. 그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흘러나오는 영은 미움의 영이다. 당신에게 배움이 있다면 사람의 영을 한 번 만져보는 즉시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은 가장하여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그의 영은 감출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의 말이 옳고 생각이 옳을지라도 영은 옳지 않다. 당신의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바로 당신이 어떻게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였는지에 달려 있다. 성령의 징계가 있을 때 당신도 성령을 따라 유죄 판결해야 하며, 만일 당신이 날마다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날마다 당신 자신을 처리하기를 배운다면, 당신은 날마다 진보할 것이다. 당신의 진보 여부를 자신은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안다. 상하이에서 어떤 사람이 늘 내 문을 두드리며 나를 보기 원했는데, 종종 나를 보자마자 즉시 “니 형제님, 내 영이 진보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진보가 없는 사람이다. 진보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영이 어떠한지를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으며 모르는 것이 가장 좋다. 마치 모세가 얼굴에 빛을 발할 때 그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본 것과 같아야 한다(출 34:29-30). 만일 어떤 사람이 늘 거울 앞에서 자신을 관찰한다고 하자. 그러한 사람이 자신이 어제보다 더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자신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러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누구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분석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우리의 영 안에서 가능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다.

합당한 영을 갖는 목적

영의 상태가 좋아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만일 교회 가운데서 모든 형제자매의 영이 다 깨끗하고 높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서로 공급할 수 있고 교회는 풍성해진다.

1919년 말에 주님을 믿고 난 후, 나는 1920년 초에 바버(M. E. Barber)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그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나는 다만 그녀의 말을 통해서만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녀를 보기만 하고 그녀와 함께 산보를 하기만 해도 영의 공급이 있음을 느꼈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말을 해야만 그에게서 그의 영의 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바버 자매님은 이와 같지 않았다. 그녀가 저기 앉아 있기만 해도 당신은 여기서 적셔지고 기름 부음이 있음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영의 공급이다.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문제가 아니며 어떤 것을 말하는 문제가 아니다. 오늘 누구든지 배움이 많은 사람은 영의 축적도 많으며 또한 영의 공급도 많아진다.

봉사에 있어서 반드시 영을 사용하기를 배워야 함

우리는 교회로서 섬기는 것을 배우고 있다. 우리는 합당한 영적인 느낌을 가져야 하며, 항상 영을 접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봉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봉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의 결과이어야 한다. 영이 영을 만지면 즉시 영적인 반응이 생긴다. 당신의 영이 감동을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상대방의 영이 당신을 만져야 비로소 당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즐거워하고, 울고, 말하는 것이 당신의 영을 감

동시키지 못하며, 오직 영만이 당신의 영을 감동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자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영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영을 만져야 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영을 만져야 한다. 영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온 교회에 영적인 봉사가 있으려면 먼저는 반드시 옳은 영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영을 열 뿐 아니라 전체 형제자매들의 영 또한 활짝 열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럴 때 교회가 전체적인 봉사를 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생각과 지혜와 감정으로 봉사하려고 한다면, 나의 영은 즉시 닫힌다. 영을 사용하는 것은 집회와 봉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영을 따라 행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 중에서 한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반응하고 관정하는지에 달렸다. 우리의 관정과 교통은 바로 영에 근거하며 많은 의견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언급한 것이 다만 당신의 놀라운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사람의 생각밖에 만질 수 없고 사람의 영을 감동시킬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사람의 영을 만지고자 한다면, 생각에서 나온 말을 사용하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당신은 영이 사용하지 않은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계속하여 영이 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기를 배운다면 우리의 영은 계속하여 높을 수 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동역자들의 메시지나 형제자매들의 간증 혹은 부흥사들의 설교 등이 옳은지 그른지를 관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말하는 사람의 영이 어떠하며 영의 공급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눈먼 이었던 사람이 일단 보게 되면 그의 눈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다른 기관은 적게 사용하게 된다. 오늘 영에 대하여 우리 역시 이러해야 한다. 영을 많이 사용하고 생각을 적게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 몸에 있는 기관은 사용하면 할수록 더 발달된다. 사람의 팔과 근육은 사용할수록 강해진다. 우리의 영 또한 틀림없이 사용할수록 강해질 것이다.

내가 여기서 젊은 형제자매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기도할 때 만일 영 안의 감동이 많으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영 안의 감동이 적으면 당신의 기도는 짧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번 기도 후에 연장한 형제자매들에게 묻고, 그런 후에 다음번 기도할 때 다시 묻기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여러 번 묻기를 배운다면, 당신은 영의 상태를 알 수 있으며 영을 따라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이 아멘을 많이 한다는 것이 당신이 반드시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멘 소리가 없다면 당신은 의심해 보고 당신의 기도가 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 짧은 기도가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며 긴 기도 역시 반드시 틀린 것이 아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입을 열지 않는 것도 옳지 않다. 우리가 입을 열고 닫는 것이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 성령께 득죄하는 것이다. 젊은 형제자매들은 배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겸손하게 묻기를 배워야 한다. 형제자매들이 어떤 사람의 기도나 말이 옳지 않은 것을 느낀다면, 그것에 대하여는 정직하게 본인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 만일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단지 뒤에서 모두가 서로에게 전보를 보내는 것처럼 말한다면,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 당을 짓는 것이다.

우리는 외적으로 동역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봉사 안에서 무거운 영적 분량과 좋은 영적인 상태를 지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더 많은 배움이 있게 하시기를 원한다. *(위치만 니 전집, 62권, 275-285쪽)*